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획을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적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는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책원에 대하여 해서 김인후의 소책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사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책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책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해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뭇시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태라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책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혹

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시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인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와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뒤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책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자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가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여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 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 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8.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9. 퍼즐 6. 단양, 1970년
Puzzle 6 Danyang 1970
10. 풍기현과 사림, The Chu-tz scholar in l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 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HKIRA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이한 「황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음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퍼즐 6. 단양, 1970년 - Puzzle 6 Danyang 1970 -

단양현감으로 부임하는 퇴계 이황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입춘이 지난 지 이십여 일이 지난 2010년 2월 24일 그러니까 음력 정월 열 하루날 나는 폐허가 된 우화교 앞을 다시 찾았다. 민족 대명절인 정월 대 보름을 나흘 앞두고 단양천 합수머리 쪽에서 하방리와 증방리를 잇는 나들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긴 나는 새벽길을 재촉하여 집을 나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사백 육십 이년 전 이날은 퇴계 이황이 서소문 경저 이웃에 살았던 진복창(陣復昌)의 원치 않았던 호의를 피하여 예정보다 한양을 서둘러 출발할 무렵이었을 것이다. 차를 늦재에 세우고 내리자 나의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고깔 모양의 성재산등성이었다. 언제보아도 단아하고 아담한 그 모습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유난하게도 선명하게 가까워보였다. 우수(雨水)가 지난 지 닷새 밖에 안되었으나 산등성이를 너머 오는 바람에 차츰 생기가 실리기 시작했고 신발을 통해 발끝에 닿는 땅바닥의 촉감도 전과 달리 부드러워진 것을 보면 얼었던 땅마저도 풀리기 시작한 듯 사방에 봄기운이 돌아나고 있었다. 그런 산비탈에 늘어선 나즈마한 단성읍 사무소와 향교, 그 주변에 빼곡히 나지막하게 늘어선 형형색색의 작은 지붕들이 주는 아늑하고 따스함과 편안함... 그런 것들이 고루 섞인 단성읍의 풍광에 나는 감정의 흔들림을 느끼며 한껏 숨을 들이켰다. 시속 120km로 쉬지 않고 네 시간을 달려온 긴장감으로 경직된 차안의 공기와 달리 강가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뿔내음과 땅 내음이 어우러진 그 미묘한 냄새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향만이 주는 특이한 냄새였다. 나는 숨을 들이킬 때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감겨지는 눈을 그대로 내맡긴 채 숨을 토해내며 마치 내 고향의 냄새와도 같은 이곳 바람 내음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장에 찌든 나머지 피곤함에 지친 나에게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만 느낄 수 있는 형용하기 힘든 감정의 파장같은 짜릿한 자극이기도 했다. 이런 느낌에 감싸여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던 나는 단양향교 앞에 이르자 오랜동안 접어두었던 퇴계 이황, 그도 1548년 바로 이 무렵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증방리였고 객사를 바라보며 제방을 내려서서 단양천을 가로지르는 나들목을 건너 관아로 들어섰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늦재를 통해 단양을 바라보며 옛일을 조사하려는 나의 입장과 퇴계 이황의 입장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부터가 전혀 달랐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었다. 과연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부임한 것일까. 이런 궁금함은 보름전 덕절산 산행을 하면서 사인암리에서 출생하고 자란 역동선생 우탁과 관계가 있었음을 깨달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그는 이곳에 오기를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은 납득할만한 동기와 설명이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이곳에 와서 남긴 책과 문집을 조사하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발견한 것이 이 책이었다. 그가 이곳 현감으로 재임한 기간은 불과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 책을 남길 정도로 이곳을 좋아했고 사랑했으며 부지런했던 것은 확실했다. 혹시나 하여 고향을 그린 향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해보았으나 이시기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긴 글은 없었다. 궁리 끝에 생각을 바꾸어 부임 전 상황을 그에 관한 연보를 중심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발견한 것이 조령도중(鳥嶺途中)이란 표제로 쓴 바로 이 문장이었다.

치명각각수잔잔 (雉鳴角角水潺潺)
 평은 깎깎 울고 시냇물은 졸졸 흐르는데
 세우춘풍필마환 (細雨春風匹馬還)
 가는 비 봄바람에 말을 타고 돌아오니
 로상봉인유희색 (路上逢人猶喜色)
 길에서 만난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쁘고
 어음지시자향관 (語音知是自鄉關)
 말소리 들으니 내 고향에 온줄 알겠구나(金周漢 역)

이 시는 그가 단양 현감으로 부임하기 2년 전인 46세 되던 해, 1546년 삼월 조령너머 고향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쓴 것이었다. 그는 이 시에서 지금 이곳을 찾아온 나와는 달리 조령을 넘자 오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경상도 사투리를 듣는 순간 고향 온 것을 실감했다고 한 것이다. 도시의 삶에 찌든 나는 깊은 호흡을 통해 자연속에 스며있던 고향을 느낀 반면 퇴계 이황은 사람의 존재를 통해 고향을 느낀 것이다. 그와 나는 세월의 격차만큼 서로 속앓이 마저 달랐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이 무렵 해가 바뀌면서 그는 벌써 두 번째 한양에서 오백리 길이 넘는 조령을 넘고 있었다. 불과 달포 전 정월 스무 이튿날만 해도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의 부인 권씨와 함께 한양을 출발하여 이 고개를 넘었다. 평소 존경해왔던 장인 사략정 권질(權稷)의 죽음으로 그를 풍산현 가일 지곡선원(枝谷仙原)에 장례 지내기 위함이었다. 무사히 큰일을 치른 뒤상경하여 조정의 일에 임하였으나 그는 또 다시 지병에 시달렸던 것이다. 하는 수없어 염치를 무릅쓰고 요양을 위한 휴가를 조정에 청하여 얻어 달포만에 다시 길을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의 귀향길은 어느덧 충주를 지나 계곡을 끼고 에음길로 접어들어 새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행이 시작될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으나 막상 조령 고개를 넘어서면서 셋바람사이를 굶고 내리던 빗발에 마저 몇자 운무가 계곡의 새밭에서 피어올랐다. 계곡에 날린 들판과 바위들에 맺힌 물방울은 자신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신선봉 협곡에 쏟아지는 바람사이에 간간이 들려오는 솔잎의 흔들림 소리

가 섞여 들어왔다. 평생의 절반을 귀양살이로 전전하며 초라한 행색으로 살아온 그의 장인 권질¹⁾이었으나 그는 절의가 있는 선비였다.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 중종 33년(1538) 석방되어 직첩(職牒)을 돌려받았으나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나머지 여생을 향리에 머무르며 편안히 살겠다고 그의 장인이 숨을 거둔 것이다. 그것도 귀양살이에서 풀리지 십년도 채 못된 7년만의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와 함께 한 지난 16년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치자 기개 있는 사람의 한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뼈마디가 좌여드는 고독이 아픔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그를 달래 준 것은 로상봉인유희색(路上逢人猶喜色)··· 곁에서 만난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를 기쁘게 한 것은 말없는 자연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었던 곁에서 만난 고향사람들이었다.

퇴계 이황이 권질과 이렇게 끈질긴 인연을 맺게 된 데에는 그만큼 각별한 사연이 있었다. 퇴계 이황이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권질이 예안으로 귀양 간 중종 16년(1521)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1살 때 막 결혼하여 부인 허씨와 신접살림을 온헤리에서 차리고 성균관을 오갈 무렵 권질은 39세의 나이로 장살(杖殺)된 그의 아우 수찬(修撰)의 신사무옥(辛巳誣讞)에 연좌되어 예안(禮安)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안동 사람은 위로 차 그의 적소를 방문하곤 했다. 무명의 선비에 불과했던 퇴계 이황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당시 그의 눈에 비친 권질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던진 선비였고 도학의 실천을 위하여 신사무옥(辛巳誣讞)이란 순교의 길을 택한 성리학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만난 권질은 어떤 사람이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신사무옥(辛巳誣讞)의 시말과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사옥은 기묘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옥이었고 일의 발단은 송사련(宋祀蓮)과 정상이 안처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의 조객록(弔客錄)과 역군부(役軍簿)를 증거로 이들이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고변(告變)하여 발생한 참사에 불과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확실한 것은 3년 전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기묘사화로 사림파를 제거하고 실권을 잡자 조광조(趙光祖) 일파를 두둔하였다는 혐의로 좌의정이었던 안당(安堂)과 그의 아들 안처겸(安處謙)을 비롯한 문근(文瑾)·유인숙(柳仁叔) 등을 파직시킨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훈구파가 사림의 잔당을 처리한 정치적 숙정에 가까운 정변이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안당의 조카뻘 되는 송사련만이 유일하게 관상감(觀象監) 판관(判官)이 된 것이다. 실권자인 심정과 남곤이 송사련의 아버지가 송인(宋璘) : 초명은 (者斤金)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사예 안돈후(安敦厚)의 서녀(庶女)인 감정(甘丁)이었음을 모를 리 없었

다. 말하자면 그녀는 안당(安堂)의 서매(庶妹)가 되었으므로 안당은 그의 외삼촌뻘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척관계를 지닌 송사련에게 심정일파는 종 5품의 벼슬을 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심정 일파가 사림을 모함 잡아 내 쫓으려는 낯새를 미리 알아차린 송사련이 남모르게 안당의 반대파인 심정일파에게 아부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심정 일파의 처사에는 물론 나름의 계책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천출인 송사련이 권문세가를 드나들며 지성으로 바랐던 것은 환수(宦數)를 트고자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좌의정이었던 안당이 그가 그토록 외삼촌인 그의 집을 문지방이 닿도록 드나들며 자신이 미천한 출신으로 벼슬에 오르지 못함을 불만스러워 함을 통사정했으나 한번도 아랑곳 하지 않았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심정일파는 그에게 벼슬을 줌으로써 그의 공력이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게 했던 것이다. 송사련에게 있어서 이 일은 마치 병풍에 그려진 닭이 휘를 치듯 정작 그를 대우해 준 사람은 당대 세도가인 심정 일파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각인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했다. 더구나 그들로부터 천만의외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종 5품의 벼슬, 관상감 판관, 이런 벼슬이면 고을 수령자리는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격있는 자리였다. 그들과 잘 협상만 하게 된다면 그들의 처분에 따라서 외직은 물론이고 경사(京司)의 노른 자리에도 취사(取士)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판국에 공교롭게도 안처겸은 장인의 농장인 용인에서 이정숙(李正叔)·권질등과 함께, 기묘사화로 득세한 심정과 남곤 일파가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하여 이를 제거하기로 모의를 한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 송사련(宋祀蓮)이 참석했던 것이다. 시골판야의 통인 구실이 하늘같이 쳐다보이던 시절이 어제만 같은데 오늘에 이르러 경사의 구실아치 까지 현달할 것을 넘보게 되었으니 세상에 머리털 나고 이런 왕기(旺氣)가 따로 없었던 그였다. 그는 이제 심정 일파에게 또 다시 자신의 충성심과 재주를 보여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이다. 그는 주저 없이 자신의 처남인 정상(鄭鏞)과 짜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했던 것이다. 결과 안당·안처겸·안처근(安處謹) 3부자를 비롯하여 권질·이정숙·이충건(李忠健)·조광좌(趙光佐)·이약수(李若水)·김필(金玢) 등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말았다. 그리고 송사련은 그 공으로 당상관(堂上官)이 되어 절충장군·시위대장 등을 지내면서 종신토록 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이나 종실과 사돈을 맺었고, 아들 중에 송익필²⁾은 구봉집³⁾을 남긴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사람의 탐욕과 음모가 이렇게 무서운 여파를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다른 사화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이념에서가 아니고 정적(政敵)을 없애기 위하여 정치적 음모를 동원하였다는 특이성을

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안(士安). 본관은 안동(安東) 아버지는 예조참판 주(柱). 그의 장인 권질은 아버지는 예조참판 권주(權柱)였다. 연산군 10년(1504) 폐비윤씨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자 그의 아버지는 사사되었다.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마침 연산군의 실정(失政)의 탄핵하는 한글투서가 궁중에 나돌자 언문옥사(諺文獄事)가 다시 일어났다. 이때 그는 좌인의 자손이라 하여 거제도(巨濟島)에 유배되었다. 중종 원년(1506)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음보(陰補)로 현등참봉(顯等參奉)이 되고 1517년 광흥장봉사(廣興倉奉事)로 승진되었다.

2) 조선 중기 학자.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峯). 본관은 여산(礪山). 서울(庶出)로서 아우 한필(翰弼)과 함께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고, 명문 자제들과 폭넓게 사귀었다. 초시(初試)를 한 번 본 외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하여 명성이 높았다. 이이(李爾)·성혼(成渾)과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 밝아 김장생(金長生)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고양(高陽)의 구봉산(龜峯山) 밑에서 크게 문호를 열고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그 문하에서 김장생·김집(金集)·정업(鄭業)·서성·정홍명(鄭弘溟)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시와 문장에 모두 뛰어났으며 이산해(李山海)·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최립·이순인(李純仁)·윤탁연(尹卓然)·하응림(河應臨) 등과 함께 선조 때의 8문가로 불리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구봉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

지닌 사화였다. 이 일로 조정의 권력 다툼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 풍파를 당한 권질에게 남은 것이라곤 난리 통에 정신이 혼미해진 아홉살 박이 여식하나와 몰락한 집안뿐이었다.

퇴계 이황이 처음 만난 권질은 이런 상황에 처한 몰락한 선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를 만날수록 퇴계 이황은 이 사건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 권주는 을사사화 때 사사되었고 신사무옥에 죽은 그의 동생인 수찬은 정몽주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여 성사시킨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퇴계 이황은 그를 흠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의 고향 예안에 귀양와 있는 권질의 세거지가 지금의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로 자신이 살고 있는 온혜리와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으므로 당시 과거 급제에 별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는 자주 권질을 문안 하곤 했었다. 더구나 이들은 현량과⁴⁾ 출신 선비들이 아닌가. 사람의 핵심인 이들에 대한 퇴계 이황의 정리가 남달랐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퇴계 이황이 첫 부인과 사별한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권질을 문안한 자리에서 그는 퇴계 이황에게 19살 먹은 자신의 딸을 속현(續絃) 아내를 사별한 남자가 처녀장가를 드는 것 할 것을 부탁한 것이다. 그녀는 나이 9살 때 아버지를 따라 귀향 처에 온 그녀가 어엿한 규수로 성장한 것이다. 빼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탓에 귀티가 넘쳤으나 아주 어린 나이에 신사무옥으로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정변을 겪었으므로 혼이 나가 정신이 혼미한 것이 흠이었다. 이런 그녀를 거두어 달라는 권질의 부탁을 받자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그는 홀 어머니 박씨의 허락을 얻어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꺼이 맞아들인 새사람이 둘째 부인 권씨였다. 이러한 권질을 장인으로 모시게 된 것도 그의 어머니 박씨가 의를 실천했던 선비집안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는 어머니의 도량 때문이었다. 권질과 퇴계 이황은 이런 사연으로 끊을수 없는 인연을 지닌 장인, 사위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 비어 두었던 고향집 지산와사에 홀로 왔어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두근거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사를 곱했다. 특히 연전 9월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 복(宓)을 잃었고... 한달도 안 되어 이기(李玘)의 모함⁵⁾을 받아 삭탈관직까지 되었고... 그후 통훈대부로 승진하여 영접도감(迎接都監) 낭청(朗廳)으로 임명되었으나 선달 초이를 장인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를 들은 것이다. 지난 일년 사이는 모든 일이 힘겨웠던 한해였다. 그래서 염치를 무릎쓰고 바쁜 공무일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어 고향을 찾아왔으나 5월이 지나도록 지병은 깊어져



(그림 1) 토계천과 퇴계 이황 선생의 유적분포

만 했다. 병의 차도가 없어 조정에 돌아가지 못하자 조정은 그를 해직하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7월 한양 서소문 집에 남아 있던 부인 권씨마저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일년을 사이에 두고 세 번씩이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것이다.

8월 하순 그는 부인 권씨의 영구를 영지산(靈芝山)북려 백지산 잣갓(栢枝山)⁶⁾에 장사지냈다.

아무리 정신이 혼미하여 남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아내였다고는 하지만 자신과 16년을 한 이불속에서 지낸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녀도 아버지인 권질이 신사무옥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제 짝을 만나 건강하게 잘 살았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애뜻함과 애절함은 더했다. 무슨 생각이었던지 그녀를 신혼살림을 살았던 지사와사가 있는 온혜리에 묻지않고 그는 토계천이 낙동강을 바라보며 흘러내리는 하계마을 영지산 북려에 한 많은 그녀의 삶을 묻었다. 그리곤 그는 사랑하는 부인을 애써 외면이라도 하듯 멀리 보이는 곳에 작은 초막을 짓고 부인상을 치른 것이다. 권씨 무덤을 살짝 비껴서 있는 암자, 후일 그가 죽었을때 그것이 바로 양진암이다. 16년전, 그가 31세 되던 해, 12살 아래인 그녀를 맞이하여 온혜리 남쪽 양곡(陽谷)에 달팽이 겹질만한 작은 집 지산와사(芝山蟬舍)를 짓고 새 살림을 살던 것도... 그가 태어난 온혜리 태실 앞을 조잘거리며 흐르는 토계천 건너 살포시 늘어진 남쪽 들녘, 서당골(書堂谷)⁷⁾이었다. 그리고 숨을 거둔 그녀를 묻은 것도 토계천의 거친 결이 낙동강 큰물로 자자드는 토계천 끝자락 하계(下溪)이었다. 그는 첫 부인 허씨는 그녀가 자란 영주 땅에 묻어주었으나 둘째 부인 권씨

3) 조선 중기 성리학자 송익필(宋翼翊)의 철학문답서·태극과 이기(理氣)에 관한 자문자답(自問自答) 형식으로, 그의 저서 《구봉집龜峰集》 권3 잡저에 실려 있다. 태극문에서 송익필은 자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理)는 하나라는 주희(朱熹)의 본뜻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였다. 태극과 동정(動靜) 또는 음양과의 관계, 인성(人性)의 선악 등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입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즉 <부동부정(不動不靜)하나 동정을 함유한 것이 태극이고, 동정의 두 실마리가 순환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기(氣)이며, 동정하게 하는 소이자(所以者)가 태극이다>라는 등의 논지를 폈다.

4) 1519년(중종 14) 조광조(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중국 한(漢)나라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떠 이론과 실정을 겸비한 관리의 선출을 위해 실시하였다. 한양에서는 사관(四館)이 유생과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후보자를 성균관에 천보(薦報)하면 성균관은 이를 예조에 전보(轉報)하며 중주부(中樞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홍문관·사헌부·사간원 등에서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유향소(留鄕所)에서 수령에게 천거하면 수령은 관찰사에, 관찰사는 예조에 전보하였다. 예조에서는 후보자의 인적사항·학식·행실 등을 종합하여 의정부에 보고한 뒤 왕의 친림하에 전정(殿筵)에서 대책(對策)으로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김식(金湜) 등 28명이었는데, 거의 조광조 일파를 추종하는 신진사람이었다. 그 결과 훈구세력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위훈삭제(僞勳削除)문제가 더붙어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5) 사화로 인심이 흉흉해진 틈을 타서 우의정 이기는 흥현함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몰아낼 심산으로 혼자 입결하여 이천개(李天啓), 이황(李滄), 권물(權勿), 이담(李湛), 정황(丁煥) 등의 파직을 주청하여 이들을 파직케 했다.

6) 지금의 백동서원이 있는 곳이다.

7) 중마 앞 온계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서당(書堂)이 있었다고 한다.

만은 자신이 태어난 태실 앞을 흐르는 토계천 가에 묻은 것이다.

그 무덤 건너 흐르는 토계천 너머 북쪽 산기슭 동암 바위에 의지하여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부인 무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 있는 자그마한 암자, 양진암(養眞庵)… 이것을 짓고 부인상을 치른 사람 그분이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흐르는 눈물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

무정한 세월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과 고통을 지워줄 수 있었을까…

그즈음 조정은 그에게 예조의 종 5품관 벼슬인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 겸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제수하였으나 그는 부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롯된 그의 유거생활(幽居生活)은 일년 여 지속되었는데 이때 그는 토계(兔溪)라는 지천의 이름을 퇴계(退溪)로 고친 다음 자신의 호로 삼았다. 한해 전 이곳을 답사했을 때 만 해도 나는 퇴계 이황은 율법을 신봉하는 도학자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병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던 남편이었다는 인격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가 1546년에 보여 준 일련의 사건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태어난 땅을 가르며 흐르는 토계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런 나머지 사랑했던 그의 부인과 자신마저 이곳에 묻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토계라는 지천은 단순히 이황선생에게 자신의 호를 짓도록 이름이나 빌려줄 허전한 개울이 아니었다.

이 냇물은 얼핏보면 용두산(龍頭山)⁸⁾ 자락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내려 30여호가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온혜리 중리(中里)에 있는 퇴계 이황의 태실과 노송정 고택, 그 뒤 수곡(樹谷) 골짜기에 자리한 퇴계 선생의 조부와 부모의 묘, 이를 수호하기 위한 진성이씨 수곡재사(樹谷齋舍)를 스치며 온계리 벌판을 가로지르는 범속한 냇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가지 달랐던 점은 온기가 있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얼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이 물을 온계(溫溪)라 했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북쪽 만리산과 용두산 계곡을 타고 내려온 태자리 물과 청계교 근처에서 합쳐져 큰 내를 이루며 온혜리 벌판을 남쪽으로 가로며 흘러갔다. 이곳 한가운데 퇴계 선생의 아버지인 진사(進士) 이식(李植), 숙부인 송재(松齋) 이우, 중형인 온계(溫溪) 이해(李灌) 공을 배향하는 청계서원(淸溪書院)이 현종8년 1667창건되자 유서 깊은 곳이 되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6년(1869) 훼철되자 지금은 그곳을 지나는 35번 국도를 따라 상가가 늘어서 있을 뿐이다. 온혜리, 주변에 용두산, 국망봉⁹⁾, 만리산, 건지산, 영지산 4개의 큰 산봉우리

로 둘러 싸여 있었으므로 이곳 들판은 의외로 광활했다. 여기서 냇물의 폭을 더한 온계는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를 마주보고 영지산 자락을 타고 북쪽으로 역류하듯 흘러내린 운곡리 냇물과 합강(合江)을 이루자 갈 곳 잃은 것은 사철 맑은 물을 자랑하던 청계였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탐타 흐르듯 동남쪽 사면으로 낙동강을 향해 방향을 틀어 토계리를 가르며 흘러내린 이 물이 바로 토계(退溪)였다. 사람들은 토(兔)자를 같은 음(音)의 토(土)자로 고쳐 마을 이름을 토계(土溪)로 불렀다. 이 물줄기가 끝나는 하계에 사랑하던 부인을 묻고 그녀 무덤이 바라보이는 언덕 동암(東巖)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 그가 바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이었다.

부인상을 마친 그는 흐르는 이 냇물의 이름을 퇴계(退溪)로 고치고 자신의 아호(雅號)로 삼은 것이다. 이제 이 작은 지천 토계천은 단순한 냇물이 아니라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경관요소가 아니라 그에게 삶과 죽음이 하나의 줄기에 불과함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했고 영원으로 가는 출발을 알려주는 시작으로 의미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냇물은 그에게 작은 것이 무한으로 가는 사랑의 힘이 깃든 길임을 알려주는 물줄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훗날 못 사람들은 퇴계종택¹⁰⁾을 중심으로 상계(上溪)를 웃토계·웃토끼라 했고 아랫냇을 하계(下溪)를 아랫토계·아랫토끼라 했다¹¹⁾. 이제 퇴계 이황선생의 세거지가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토계천 하류의 하계는 온혜동에서 육십여리 떨어져 있고 낙동강 줄기에서도 제법 큰 모래밭을 이루고 있었다. 동남방으로 강을 건너 가면 영양으로 통하는 진입로와 같은 의촌동과 통하고 동북으로 청량산으로 진입하는 단사촌과 통했다. 그런 탓인지 하계마을은 예안 영양 봉화등지에서 낙동강 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물류가 스쳐가는 곳이었다. 실로 그물 코와 같은 하계촌은 속계와 선계가 마주 닿는 그런 곳이었다. 이곳에서 상기(祥期)를 넘겨 부인복을 받은 그는 원촌(遠村)마을에서 청량산(淸凉山) 자하봉(紫霞峯) 북쪽까지 11경을 차례로 유람하며 시를 짓고 마음과 세월을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1546년 양진암을 근거로 한해를 보냈던 그에게 하계와 청량산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해 가을 그는 양진암에서 청량산을 어떤 길로 갔을까… 가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청량산은 양진암에서 칠십 여리나 떨어져 있었으니 하룻길일 넘었다. 그런데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계곡의 형세가 풀어놓은 넉타이모양으로 흐트러져 있었으나 굴곡진 모습은 지도만으로 지형을 파악할 정도로 녹녹한

8) 도산면 운곡리와 녹전면 매정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593m의 산으로 예안의 진산(鎭山)이다. 용두산은 용수산(龍首山) 혹은 용수사(龍壽寺)의 이름에서 취하여 용수산(龍壽山)이라고도 불렀다.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산정에는 기우단이 있으며, 산 아래에는 용수사가 자리잡고 있다.

9) 도산면 온혜리와 녹전면 신평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480m의 산이다. 전설에 따르면 퇴계 선생이 이 산봉에서 한양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죽지법으로서 왕래하면서 국사(國事)를 논의하였다 한다. 퇴계 선생이 인조반정 때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있을 때 간신배들에 의해 명종(明宗)의 여수(御水)에 사악이 들어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산봉에서 관망하고 죽지법으로 그곳에 당도하여 어상을 물리개 하고 명종 임금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산봉에는 바위가 3개 있는데 바위마다 한 자씩 새겨 '國望峯'이라고 표시하였다. 또 국망봉 정상에는 '국망봉단비(國望峯壇碑)'가 서 있는데 이 비석은 진성이씨(眞城李氏) 온혜(溫惠) 입 향조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李繼陽) 공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망봉 정상(481m)에 단을 쌓고 매년 10월 24일이면 단에 나아가 북쪽을 바라보고 절하기를 30년동안 하였는데, 공이 단을 쌓았던 곳을 나타내고 있다.

10) 이 종택은 순조원년 1907에 옛 종택이 일변군의 방화로 전소되어 사림에서 종택으로 세운 집으로 1929년에 퇴계선생의 13대손인 하정공(霞汀公, 忠鑄)이 옛 종택의 규모를 지금의 자리에 새로 건립한 것이다.

11) 이 토계 마을은 원래 퇴계천의 상류에 위치한 상계와 그 하류인 하계(下溪), 퇴계천 건너 남쪽에 자리 잡은 계남(溪南), 하계를 지나 고개 너머에 있는 원촌(遠村) 등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안동댐 수몰로 마을로 계남마을이 완전히 수몰되자 재편되어 지금은 양평, 상계, 하계가 토계리에 속해 있으며 원촌 마을은 도산면 원천리(遠川里)에 편입되었다.



(그림 2) 1918년 토계천과 청량산일대

곳은 전혀 아니었다. 작년 이맘 때쯤이었을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이런 궁금합과 답답함에 사로잡힌 나는 1918년 지도를 들고 이곳을 답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장에서 알아낸 사실은 양진암에서 청량산 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중 하나가 곧장 하계를 따라 낙동강을 건너 천곡(川谷) 하안 모래밭을 밟으며 단곡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이 길로 간다면 갈수기에는 낙동강을 질러가는 길이었으므로 가까웠으나 낙동강에 물이 차오를 때면 강을 두 번씩이나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 길은 우기와 건기를 잘 헤아려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원촌으로 가는 산길을 택하기로 했다. 양진암에서 왼편으로 산길을 잡아 오르자 솔잎이 그득한 이차선 도로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에움길이었을 이 길로 접어들자 토계계곡에만 물소리가 지천이었 뿐 숲 속 길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고개를 넘어서서 얼마를 걸어 내려올까 이육사 박물관을 지나자 멀리 원촌(遠村) 들판이 낙동강을 향해 달려 나갔고 그토록 낭자하던 토계천 물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사방은 숨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것만 보아도 이곳은 다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개를 먹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으나 목덜미에 땀이 후줄근하게 배어오자 한기마저 사라졌다. 마을 어귀를 지나 노송 숲에 이르렀다. 원촌에 이른 것이다. 벽향궁촌(僻巷窮村)이었다. 얼추잡아 이십여호가 될까. 그런 동네에 자그마한 집들이 'ㅁ' 자 기와집을 중심으로 추녀들을 산자락에 내리고 납작 엎드려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예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청량산으로 가는 초입 단사마을이다. 노송 숲 앞에 있는 마을은 멀찌감치 두고 산길을 접어들었다. 벼랑끝을 딛고 선 숲사이로 낙동강 줄기가 꺼뚝꺼뚝 보였다.

코리를 물고 굽이치는 언덕길을 내려서자 길길이 자란 노송들이 산비탈에 무성했고 그 사이로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단사촌이 아득하게 보였다. 붉은 점토질 흙이 많아 강가의 자갈마저도 얇은 분홍이 감도는 갈색 빛인 이곳 마을 이름은 붉은 단(丹) 모래사(砂)자를 따서 단사촌(丹砂村)이라 했다. 단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이곳을 낙동강 상류의 맑은 여울은 마을을 안고 흘러내렸고, 햇빛을 받은 백사장은 하얗다못해 붉을 기마저 감도는 자갈밭과 모래밭이 오리 남짓 펼쳐있었다. 그리고 강 건너 산기슭을 깎아지른 듯 서 있는 절벽이 천연의 병풍을 이루며 펼쳐졌다. 지금은 강바닥이 알아졌으나 당시 만해도 못이 깊었는지 이곳을 찾아온 퇴계는 장사천인옥위함(藏砂千玉爲函)이라고 했다. 갈문단사 천 길을 흰 옥으로 함을 짤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이곳은 땅과 산의 바탕이 지닌 아름다움을 한껏 뽐낸 천혜(天惠)의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런 풍광을 사랑했던 퇴계 이황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을 단사벽(丹砂壁)

이라 했고, 이런 단애(斷崖)가 낙동강을 따라 굽이치며 펼쳐지는 것을 보고 단사협(丹砂峽)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우러진 천하의 기경(奇景)을 예안읍지(禮安邑誌), 의성지(宣城誌)는 예안의 빼어난 경치 14곡(曲) 가운데 제 7곡으로 기록했다. 이곳은 청량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었다. 여기서 시작되는 청량산 산행은 단사, 개목 면천을 거쳐 올미재, 가사리, 너분들을 지나 학소대(鶴巢臺)¹²⁾가 있는 광석나루 청량산 입구로 이어졌다. 그 노정을 말로 하기는 쉬웠으나 단사협 백운동 가송협 광석나루 네 마디로 이어지는 경관군락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어 조목조목 의미와 구조를 찾아내고 퇴계 이황의 족적과 관련지어 맥락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영뚱하게 1918년 조선총독부 지도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이 지도를 다시 보자 단사촌 북쪽 모래밭이 끝나는 지점에서 단사협도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이곳에 단천교가 놓여 있지만 예전에는 나들목을 따라 강을 건넜다. 여기서 북쪽으로 건지산 산자락을 따라 난 길을 잡아 개목과 면천을 지나 삼십여리 강을 거슬러 가면 청량산 입구 광석촌(廣石村)이 나왔다. 비교적 쉬운 노정이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 강변을 따라 모래밭을 걸어가면 상황이 달라졌다. 바로 맞은편 길쭉에 올라서면 좌우로 넓은 들판이 산자락을 따라 펼쳐져 있었고 그야말로 세 갈래 길이 한곳에 만나는 곳이었다. 먼저 단사협이 끝난 계곡을 따라 단천동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 깊고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으나 원음으로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인적이 뜨막한 길은 아니었으나 청량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운데 길을 택하여 백운산 능선을 곧장 질러가면 고산을 바라보며 가사리로 진입하는 벼랑길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길은 그다지 멋스러움이 없는 산길이었다. 출발점인 이곳에서 길 선택이 중요했다.

그늘이라곤 하나도 없는 백사장에 앉아 이것저것 살펴보느라 주 그리고 앉은 내 등판에 쏟아져 내리는 봄날 정오의 햇빛은 제법 따갑기까지 했고 등줄기에 땀방울이 촉촉하게 배어날 정도였다. 그 바늘 끝 같이 파고드는 햇빛을 찌고 마시며 온갖 생명들이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걸음을 옮길 때 마다 발바닥을 파고드는 모래밭을 걸어서 청량산까지 답사해야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 왼편으로 두어 마장 걸어올라 건지산 그늘에 잠겨 있는 백운지(白雲池)를 지나면 격하게 흘러오던 낙동강 물도 숨을 가다듬고 마치 고요한 호수를 지나는 백조처럼 완만한 흐름으로 흘러내렸다. 이 여울은 가송협 아랫녘에 있었다. 북쪽으로 강 건너 깎아지른 듯한 건지산 산자락이 벼랑을 이루며 아득하게 솟아 있고 강물은 강바닥의 자갈이 떠 있는 것처럼 해맑았다. 이곳을 지난 퇴계는 청산녹수가 절로절로 솟아 있는데 청산녹수사초기(靑山綠水已超氣) 그 가운데 있는 흰 구름은 말해 무엇하랴 경지중간백백운(更著中間百百雲) 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곳이 백운임을 드러내려면 흰구름과 청산이 주체였고 흐르는 녹수는 파생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화공이라도 된 것처럼 청색 한 가지 색을 사용하여 삶의 여백이 지닌 의미를 주체와 객체의 어울림으로 읊은 것이다. 그의 시를 바탕으로 바라본 이곳 정경에서 나는 영뚱하게 초목을 적시듯 흘러

12) 절벽으로 된 바위가 증천에 높이 솟아 있는데, 머리와 몸은 검고, 허리와 배는 흰 학 한 쌍이 매년 3월에 와서 이 바위에서 새끼를 쳐 가지고 9월에 날아갔으므로 학소대라 한다.

가는 햇살의 아름다움이 귀하고 또 황홀하기까지 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다. 동는 햇살에 스러지는 이슬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물며 물방울을 모아 만든 백운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의성 14곡 가운데 제6곡에 해당하는 단사 북서쪽 마을 백운동은 부채살 모양으로 느긋하게 펼쳐진 백운산(白雲山) 서남쪽 자락을 따라 정상으로 숨어든 산길을 따라 늘어선 화전과 그 발두렁에 뿌리를 내린 집들로 하나 둘 뜨문뜨문 푸른 점을 찍고 있었다.

이런 백운동 윗마을이 가사리와 소두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윗동네라 하여도 눈에는 가까웠으나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물살이 워낙 급하고 험하여 우기는 물론이고 건기에도 강을 건너가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강줄기를 따라 위로 죽 시선을 끌어 올리면 계곡 서쪽으로 건지산 자락을 직벽으로 깎아 세운 절벽에 잣나무와 향나무가 뺨뺨이 붙어 늘어선 있다. 그러나 그 석벽마저도 갑자기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히 틀어 내리자 놀란 듯 솟아오른 고산에 막혔다가 다시 북쪽으로 허물어지며 터져 올랐다. 이렇게 생긴 골짜기에 이십여리 남짓 열린 백사장 길을 따라 거슬러 오르다가 백운산 북쪽 석벽을 아슬하게 가로지르는 비랑길을 벗어나면 고산정이 있는 가사리로 닿았다. 반대로 광석나무에서 거침없이 흘러내려온 낙동강은 백운산 자락을 거칠게 부딪치며 만들어낸 석벽을 치고 돌아 고산을 감싸 안고 희 돌아 오르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지산에 놀라 급히 굽이쳐 백운동으로 빠져나갔다. 물줄기가 험한 만큼 계곡은 빼어났고 계곡이 뛰어난 만큼 가파른 계곡이 벌리고 좁힌 비랑 또한 절경이었다. 자연이 험한 만큼 이 일대 경관은 단사협과 비유될 만큼 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가송협(佳松峽)이라 했다. 모양새로 보면 비록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 동쪽의 가사리, 서쪽의 소두들 그리고 소두들 북서쪽 봉성으로 가는 고갯길 고리재, 이들은 서로 너나들이로 스스럼없이 없어 산속에서 가장 절친한 이웃마을처럼 보였다. 가송동은 양진암에서 들어오자면 육십리길이고 고리재 너머 건지산 동록에 닿는 깊은 골짜기에 있으니 이웃 태자동에서는 삼십리 온헤리에서는 육십리였다. 안동 땅의 수많은 경승 가운데서 가히 산수미(山水美)의 으뜸임을 손꼽을 만큼 경관성이 압권하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물려들었다. 그러나 강건너 골짜기 한가운데 억지로 틀어박혀 생겨난 마을처럼 서 있는 가사리(佳仕里)는 수십 년 전까지 만해도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없어 배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만큼 오지 마을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곳이 가송리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었고 다. 이 마을은 강가의 평지에 의지한 평가사리와 골짜기 안쪽 약간 높은 곳의 자리한 골가사리가 있는데 한쪽 도랑을 기준으로 위쪽을 윗마을, 아래쪽을 아랫마을 부르기도 했다. 그런 이곳을 퇴계 이황은 청량산을 왕래하던 중 강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이 참으로 아름답다하여 가송(嘉松)이라 한 것이다. 그러자 이를 뒤이어 후 사람들이 소나무가 아름답게 잘 보이는 강 건너 마을 가사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곳은 두 겹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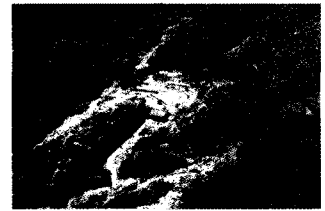
(그림 3) 하늘다리 남쪽 두루마리 같은 기암절벽



(그림 4) 기묘묘한 주세봉의 청량산 6.6봉



(그림 5) 청량정사의 모습



(그림 6) 청량정사 아래 청량사

이 겹쳐 있었다. 한 겹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가사리의 모습이었고 또 한겹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동네 모습이였다. 계곡을 따라 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낙동강은 소두들 아래 절벽 울미에 부딪치며 버락여울¹³⁾을 만들며 흘러갔다. 그러던 이 물줄기는 깊은 소(沼) 월명담(月明潭)과 오미소(午湄沼), 이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고산정(孤山亭)¹⁴⁾을 스치며 소두들 남쪽에 홀로 떨어져 솟아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 고산을 휘돌아 감으면서 외치병(外翠屏)¹⁵⁾과 내취병(內翠屏)¹⁶⁾ 사이를 빠져 백운동으로 내려갔다. 백운동 백사장에서 이 두 석벽을 본 퇴계 이황은 신들린 도끼가 바위를 깬 것이 어느 해인가 하년신 부파견항(何年神斧破堅頑) 천 길이나 우뚝 서서 흰 물굽이를 걸쳤음 벽립천심고옥만(壁立千尋高玉灣)음을 본 것이다. 이곳 가사리와 소두들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 물은 지형의 변화가 심해 유독 소(沼)가 많았다. 그럴수록 풍경은 되살아나곤 했다. 그 물빛은, 바람을 타고 바위에 부딪치며 넘실대며 흐르는 그것은, 오색 광채를 일구며 부서질 듯 흐트러지며 꿈틀대며 금방이라도 용이 되어 비늘을 번드이며 거어올라 하늘을 날듯했다. 이 물줄기를 밤에 보고 시상이 떠오른 퇴계 이황은 용이 구슬을 안고 달소에 깊이 누웠다고 포주귀와월명명(抱珠歸臥月冥冥)했다. 이 물줄기의 머리에 해당하는 산이 바로 고산이었고 바로 이곳이 의성지(宣城誌)에는 예안의 14곡 가운데 제사곡(第四曲)에 해당했다.

이 무렵 퇴계 이황은 고산을 아주 즐겨 찾았던 것 같았다. 이곳에서 동쪽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거나 남쪽 산자락을 잡아 오르게 되면 축융봉(祝融峰)·845에 오르게 된다. 그 곳에 오르면 북쪽으로 외장인봉·선학봉(仙鶴峰)을 비롯한 12개의 고봉들이 주위에 즐비한 청량산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왕모산성, 갈선대(葛仙臺), 고세대(高世臺)가 펼쳐 있었다. 왕모산성(王母山城) 중턱에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숙연하여 이 터를 갈선대(葛仙臺)라 이름 지은 퇴계 이황은 단사남쪽 석벽 갈선대에서 단사남벽갈선대(丹砂南壁葛

13) 울미재 남쪽에 있는 여울로 상류에서 내려온 뗏목이 여울 부근의 절벽에 부딪혀서 버락소리를 낸다하여 버락여울로 부른다고 한다. 여울이 급해 뗏목 10개 중 하나 정도만 무사히 빠져 나갔다고 한다. 그 위에 학소대(鶴巢臺)가 있으며, 옆에는 '오학번식지(烏鶴繁殖地)'의 비가 서있다.

14) 고산정 뒤 강가에 길게 드리운 절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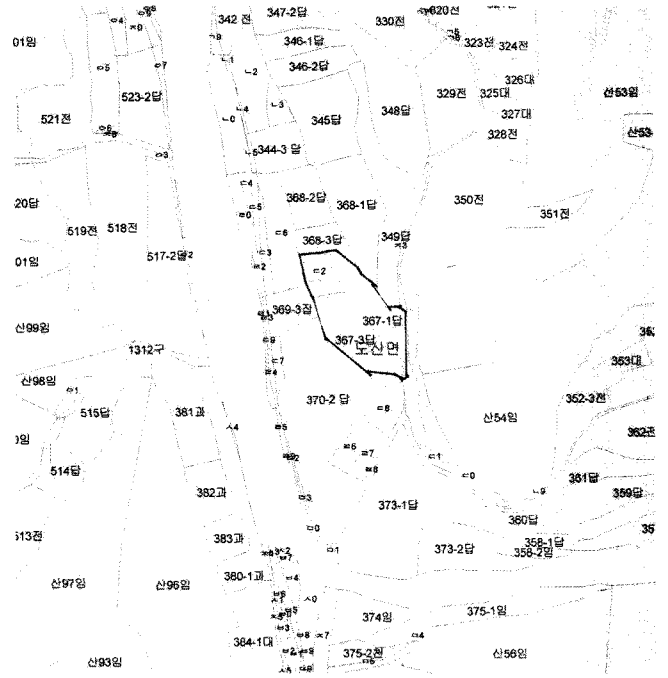
15) 가사리에서 강변을 따라 올라오다가 소두들 건너편에 위치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성성재(惺惺齋) 금난수(琴蘭秀) 선생이 봉화현감을 내놓은 후 이 정자를 짓고 고산주인(孤山主人)으로 자처하며 만년을 보냈던 정자이다.

仙臺) 한줄기 물위를 떠도는 구름 흰구름 백홀운산일수회(白匭雲山一水廻)를 시로 남긴 것이다. 그는 축융봉에 올라 여백과 사실의 존재 이 두 가지가 대비된 호연함을 말했고 그것은 아무런 이곳을 자주 찾은 그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런 청량산¹⁷⁾은 과연 어떤 산인가,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명호면(明湖面) 남쪽 해발 870m인 이 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했다. 최고봉인 장인봉(丈人峰) 외장인봉·선학봉(仙鶴峰)·축융봉(祝融峰)·경일봉·금탑봉(金塔峰)·자란봉(紫鸞峰)·자소봉·연적봉(硯滴峰)·연화봉(蓮花峰)·탁필봉(卓筆峰)·향로봉(香爐峰) 등 12개의 고봉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금탑봉 오른쪽의 절벽인 어풍대(御風臺)는 최고절승이었고 산의 서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퇴계 이황은 갈선대에서 이들을 보고 있었다. 이 산에는 아직도 27개의 절과 암자 유지(遺址)가 있고 신라시대 이후 선현들이 수도하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 밖에도 신선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대, 선녀가 가무 유희를 즐겼다는 선녀봉을 비롯하여 뛰어난 절경이 많았다. 그리고 반곡 폭포(盤谷瀑布), 산북 폭포(山北瀑布) 등 폭포가 있고 원효元曉가 건립하였다는 내청량사·외청량사, 의상(義湘)이 창건하였다는 유리보전(琉璃寶殿), 신라시대 명필 김생(金生)이 글씨공부를 하던 김생굴(金生窟), 최치원(崔致遠)이 수도하던 고운대(孤雲臺)·독서대(讀書臺), 고려 공민왕이 흥건적의 난을 피해 은신하였던 오마대(五馬臺)와 공민왕당(恭愍王堂) 등을 넓은 가슴에 품고 있는 산이 바로 청량산이었다. 옛적에 수산(水山)으로 불려지던 이산의 이름을 조선시대에 이르러 산 이름을 비롯하여 12봉우리(일명 6.6봉)지명을 바꾼 사람이 조선시대 풍기군수 주세봉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엔 몇 년전 안동부사를 지낸, 자신의 숙부 송재(松齋)이우¹⁸⁾가 청량산에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은 청량정사가 있었다. 여기서 송재공은 조카인 온계(溫溪) 이해(李灌), 이황을 비롯하여 조효연(曹孝淵), 오언의(吳彦毅)를 가르쳤다.《오산당중건기(吾山堂重建記)》에 따르면, 이황이 공부하던 곳에 사람의 합의로 순조 32년(1832)에 창건되었는데 정사의 당(堂)은 오산(吾山)이고 현(軒)은 운루(雲樓), 요(寮)는 지숙(止宿)이며, 문은 유정(幽貞)이라 되어 있다. 일명 오산당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 건물 이름의 오산은 중국 송(宋) 주자의 시 구절 명명직조오가로(明明直照吾家路)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집 산이라는 뜻이면서 유가(儒家)의 산이란 뜻도 내포하는 있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좌측 뒷간은 온돌방을 들이고 나머지 네 칸은 뒷간 마루와 마루방을 들였고 마루방은 바닥을 우물마루로 하고 앞에 사분합 들문을 달아 개방할 수 있도록 된 자그마한 건물이었다.



(그림 7) 퇴계 이황이 1521년 상숙한 땅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밤늦게 양진암으로 돌아온 그에게 조정은 품계를 두 단계나 높혀 그해 11월 정 3품 당하관에 해당하는 예빈시(禮賓寺) 정(正)을 제수했으나 그는 끝내 부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퇴계 이황은 이러한 조정의 배려를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 그 사실을 사당에 고할 정도였다. 이듬해 조정은 또 다시 7월 동격인 안동부사로 다시 명을 내렸으나 이마져 부임하지 않자 조정은 그해 8월 그를 정4품인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教)로 임명하고 소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호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그는 할 수 없이 조정에 들어갔으나 그가 또 다시 외직을 구하자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한 조정은 4개월 만인 이듬해 정월 그에게 단양현감 자리를 주었고 이를 수락한 그는 1548년 정월 20일 즈음 이곳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단양현감 퇴계 이황, 그는 학덕은 타고났으나 처복은 지지리도 박복했던 학자였다. 21살에 얻은 첫부인 허씨¹⁹⁾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상처했고 나이 30에 다시 얻은 둘째 부인 권씨²⁰⁾도 16년 만에 사별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식에게 가르침과 타이름을 주는 스승 같은 아버지였을 뿐 돈 한 푼 챙겨주거나 벼슬 한자리 살피주는 법이 없었던 아버지였다. 재산이라곤 태실이 있는 온혜리 노송정 종택에서 태어난 그가 혼인하여 분가할 때 받은 온혜동 367번지 1, 2, 3세필지 4,201제곱미터, 1,271평 6마지기 논²¹⁾이 전부였는데 아마 그는 이 땅을 근거로 온혜리 태실 앞 토계천 건너

17) 1982년 8월 봉화군·안동군(安東郡; 지금의 안동시) 일대 48.76km²가 청량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대궐이나 사찰의 건축용 목재로 쓰이던 춘양목(春陽木)이 많이 나며 송이버섯 집산지이기도 하다.

18) 이우는 1498년(연산군 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조좌랑·헌납 등을 지냈으며, 1506년 승지가 있다가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분의정국(翁義靖國)공신에 책록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 뒤에 안동부사가 되었으며, 시문에도 이름이 높았다. 문집에 《송재집(松齋集)》이 있다. 청량산은 1982년 8월에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3월에 청량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일부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23호로 지정되었다.

19) 퇴계 이황의 나이 21세때 허목재공(許默齋公)의 딸따남으로 영주에서 자랐고 그녀의 나이 21세 혼인했으나 그녀 나이 27세인 10월 둘째를 낳은지 한달만에 숨을 거두었다.

20) 퇴계 이황 나이 30세에 12살 연하인 사락정(四樂亭) 권질(權質)의 딸과 혼인했으나 그녀는 1546년 7월 숨을 거두었다.

21) 이 논은 지금도 상계파의 문답으로 상숙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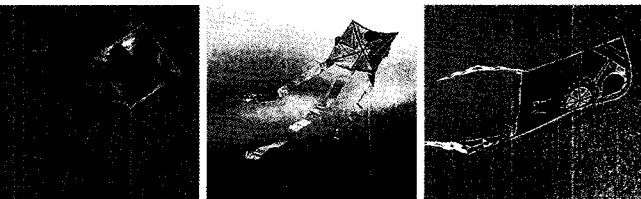
에 집을 짓고 첫 부인과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1세 되던 해 운해 남쪽 양곡(陽谷)에 달팽이 껍질만한 작은 집을 지어 부인 권씨와 함께 살았던 지산와사(芝山蝸舍) 뿐이었다. 구전에 의하면 그는 34세 봄부터 벼슬을 하면서 한양에 가게 되자 대부분의 생활을 처가에서 물려준 서소문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단양객사를 바라보며 중방리에 말을 타고 선 단양현감 퇴계 이황은 분가한 아들들 이외에 딸린 식솔 하나 없이 훌훌 단신의 입을 옷가지 몇 벌과 지필묵 그리고 읽던 책 몇 권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을 사람이었다. 오직 남은 것은 학문에 정진하는 일밖에...

1970년 수몰이전 단양지도

분명 강가 이면서도 물줄기가 한정 없이 떨어 정작 강가를 따라 펼쳐지는 벌을 멀리 밀쳐두고 반원을 급하게 그리며 계곡물 줄기를 따라 쫓아 오른 산줄기를 타고 펼쳐진 그 좁은 산록에 널브러진 밭 떼기를 품고 있는 단양은 언제나 포구를 지닌 도시와 산촌 세 가지 정취를 함께 느끼게 하는 풍광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것을 바라보면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나는 퇴계 이황의 삶이 주는 신선한 충격으로 그 짧은 시간만은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차츰 마음속 까지도 가능해지라는 기도 아닌 연원 같은 것들이 싹 터 오르기 시작했다.

남한강에 연이 올랐다.

바람이 불수록 연은 더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 연은 바람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하늘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것이 한없이 높이 솟구쳐 오르면 오를수록 모든 연의 모습은 하나같이 점으로 변해버린 까닭에 똑같아졌다. 내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득하여 저서 눈에 가물가물할 때 까지 솟을 대로 솟아오르게 되자 연은 아예 자취를 감춰 버리고 말았다. 닿을 수 없다는 망연함에 갑자기 서러움같은 어떤 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무한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니 숨어버린 그것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연줄뿐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 연이 누군가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고 누군가 그것을 통해 두악산과 사봉 그리고 말목산을 내려다보고 싶은 욕망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연줄이 있는 한 그것을 당기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연인 것처럼 까마득한 옛날일도 시간을 거슬러 가면 과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역사라는 학문이기도 했다.



(그림 8) 연

아이들이 성재산에서, 강가에 나와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 아이들 역시 조선 말기 한양의 청계천에 모여 연날리기를 즐겼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이었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 하

루 이틀 전이면 청계천에서 남한강에서 벌어지는 연싸움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다. 몇일 안 있으면 가득해질 저 달도 흐르는 이 강물도 모두 쉬지 않고 흐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영영 흘러가 버리고 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듯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도 끝내 아주 없어지려 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천지간에 한순간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역사란 변하는 부분과 변할 수 없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인 권씨가 죽자 일년여의 유거생활(幽居生活) 속에서 뭇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한 것 같았다. 혹시 귀거래가 아니었을까... 그는 귀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단양현감을 떠난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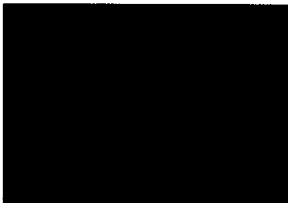
(그림 9) 옛 단양을 상방리와 하방리 일대



(그림 10) 숨지처럼 변해버린 하방리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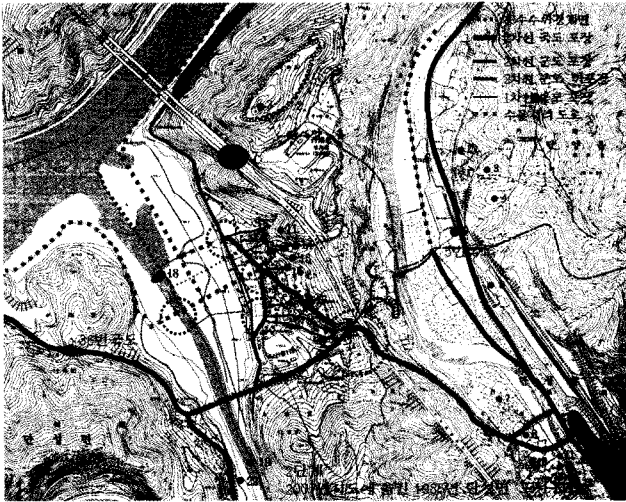
(그림 11) 단양초등학교 운동장 위치



(그림 12) 우화교와 제방을 쌓았던 석축 잔해

단양의 도시구조를 조사한다는 것은 퇴계 이황의 삶의 한 부분을 조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침내 내 자신 스스로 과거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이라도 하듯 나는 왼쪽으로 눈을 돌렸다. 나들목터와 벌 그리고 성재산과 두악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눈길을 옮기자 중방리 들판과 말목산 줄기와 모랫벌이 다시 한눈에 들어왔다. 어느 쪽을 보거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을 나는 되짚었다. 하방리 쪽에서 성재산을 걸어올라 산마루에서서 처음으로 하방리와 중방리를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 없었다. 멀리로 바라다 보이는 하방리 중방리 상방리라는 생소한 이름의 단양읍은 절로 감탄이 흘러나올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었다. 서북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이어져나간 산줄기와 동남쪽으로 긴 자취를 끌며 펼쳐진 들판과 합수머리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단양천을 감싸듯 펼쳐졌던 읍내는 아스라하게 멀기만 했다. 그 아늑하고 포근한 경치 속에서 충주호 담수로 이 도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단양읍은 내 자신을 그렇듯 좋은 인상으로 맞아 주었드시 단양현감 이황을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 역시 첫 느낌으로 단양읍이라는 생소한 지명이 주었던 거리감이나 마땅찮음을 거의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하방리보다 한 구역 앞인 상방리 늦재에 내리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원래 예정은 하방리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조사효과를 고조시키는 한편 읍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림 13) 도시복원의 주요 절점들



(그림 14) 나들목을 이용 복원한 단양읍 도로체계

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늦재에서 내려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던 것이다. 나들목을 지나자마자 또 다시 질퍽거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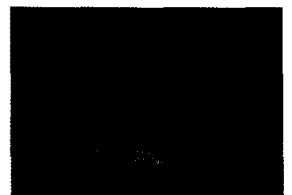
일전에 이곳을 조사할 때 이렇게 까지 진전 될 줄은 짐작조차 못했던 사실이었다. 나들목 그건 지금 상황에선 문제를 풀어가는 화두가 되고 있었다. 더구나 산길과 들판 길의 절점을 찾아내야 할 판에 가장 서둘러 찾아내야 할 요소였다. 더구나 도시역사를 추적해 가는 입장에서 나들목의 규명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이기도 했다. 지금은 다리를 설치하여 모두 편하게 강을 건넌으나 기술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나들목은 사람들이 건너가야 할 주요한 통로였다. 그러하다면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도로였으므로 하방리 도로패턴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단양읍은 지형적으로 두악산과 성재산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취락이 발달해왔던 도시였다. 특히 성재산은 양 날개에 단양천과 죽령천을 끼고 있으므로 죽령과 예천으로 넘어 가려는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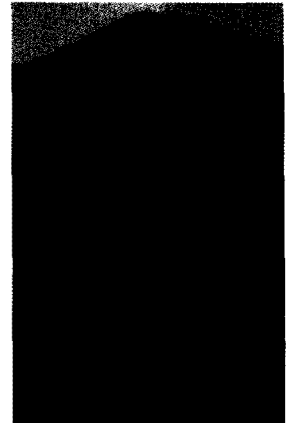
그래서 삼국이 정립하던 신라 때 이곳은 신라의 최북방 경계지로 적성산성이 있었던 곳이다. 말하자면 성재산 정상에 성곽이 있고 하단에 취락이 발달했던 곳이다. 퇴폐 산성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은 산길과 나들목의 관계가 도로의 변화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강 하구에 있으므로 수로의 이용과 강변길과 연계성이 언급될만한 곳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라시대 하방리와 죽령천의 북하리 일대가 배후도시였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곳은 전략적으로 영남의 동부지방과 연계되기 때문에 충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소백산 북쪽 교통거점도시였다. 그 흔적이 바로 상진리와 36번 국도였다. 이제 늦재란 죽령과 충주를 연결하는 고개였으므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고 하방리 도시구조는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일 표고 능선으로 수평이동 길들이 성재산과 두악산 산길과 산자락에 있는 돈돌미를 연결했을 것이다. 그리고 늦재를 향한 길이 우화교 근처 나들목을 통해 중방리와 이어진 것처럼 단양천을 가로 지르는 나들목을 숫자만큼 산길을 가로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 경작하기 좋은 곳이었으므로 경사가 급한 산지보다 경사가 완만한 하구 쪽에서 먼저 도시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방리의 옛길, 단양읍에서 단구협에 이르는 남한강 경관회랑을 직접 걸어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길을 다잡았다. 성재산자락에 올라서자 이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눈 아래 단양읍을 지나 왼편으로 두악산과 봉산 사이를 흐르는 단양천 하구 물결이 멀고멀게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봉산을 왼쪽으로 품은 단양천 하구의 한겨울 풍광은 반짝이는 은빛 햇살로 윤기를 빙기고 있는 남한강물로 어느 때 없는 풍만한 자태로 넘실대고 있었다. 이것은 사위어가는 계절이 그려내는 뜻 모르게 현란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 현란한 빛 덩어리는 살아서 꿈틀거리리는 싱싱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고 선연한 은빛이 반사되어 일일대가 모두 그 빛에 적어 드는 것만 같았다. 만약 저것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사람들



(그림 15) 제비봉과 말죽산 두 산 사이 단구협



(그림 16) 우화교에서 바라본 단양천



(그림 17) 우화교 전해의 단양천 건너 봉산

이 살았던 집들의 지붕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사 이런 기대가 부질없는 짓이라 해도 저 강줄기만이라도 저 빛처럼 은빛 백사장을 그대로 간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문자 그대로 백사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곳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원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빛 햇살로 영롱했던 그 강줄기 모래 둔 턱은 뿔발으로 척박해졌고 메말라 있었다. 이 강줄기를 따라 잡목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 그것도 때를 이루지도 못했다. 숲이 없다면 갈대라도 많았으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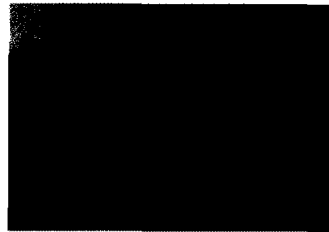
른다. 갈대마저 없는 이 강변은 황량한 빨 땀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모래밭은 사라지고 빨로만 이어지는 이 강변을 나는 걸어서 우화교 교각 잔해가 남아 있는 강변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건기와 우기의 반복으로 스폰지 처럼 변한 이곳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을 때 마다 끈적끈적하고 찝뚱찝뚱한 빨은 발목까지 빠지게 했고 그대로 물고 늘어졌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말라 죽은 잡목들의 잔가지들이 예고 없이 다리를 긁어댔다. 잠시 불편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바람결에 밀려온 차가운 공기가 숨통마저 막아 버렸다. 황급한 나머지 다시 숨을 들이마셨으나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바람 방향을 가늠하여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뿔어냈다.

이 폐허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이 남아 있는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강으로 흘러내리는 단양천 물위를 수도 없이 튕겨 오르는 싱그러운 햇살의 반짝거림과 윤기였고 어느 때 없이 소박함을 자랑하는 단양천 하구의 잔잔함이었다. 그 은빛 영롱한 빛의 점열만이 살아남아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생명감으로 예나 변함없이 사라진 옛 단양의 모습을 되살리려라도 하듯 반갑게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빛의 현란한 입놀림에 놀라 서 있는 석벽의 모습, 그 선연한 적황색의 바위 색으로 하방리 하구에도, 옛 단양읍 일대도, 선암리 골짜기도 그 빛으로 적셔지는 것 같았다. 붉은 단(丹), 밝을 양(陽)을 쓰는 단양이란 지명은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놓은 단성교에서 옛 단양과 선암리 들어가는 골짜기 일대가 한눈으로 바라 보였다. 눈 아래 흐르고 있는 단양천으로 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단양읍을 감싸고도는 성제산줄기 강 건너 산등성이가 멀고멀게 펼쳐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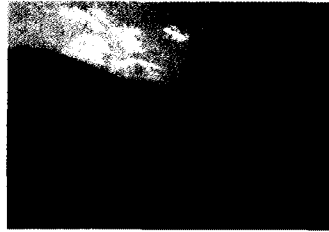
참으로 단양의 풍광은 장관이었다. 단양천을 건너려면 길을 되돌아 단성교를 건너야 한다. 다리 중간에선 나는 강 하구가 그려내는 신비스럽고도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이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풍요로운 삶의 도시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니 그때의 망상은 부질없는 것이라 치더라도 저 강물 만이라도 저 빛처럼 맑고 영롱한 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문자 그대로 남강물이 온통 은빛 물결로 가득했다더라면 날로 악화되는 환경문제로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늘어날 길 없는 자연경관에 매달려 숨 쉴 틈을 찾아 허덕이지 않고 이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남한강은 바다 같은 호수로 변해버렸고 하얀 모래밭으로 그득했던 강변길은 거무칙칙한 빨로 이어져갔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개울물은 강으로 변해버렸고 홍수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제 남한강 주변은 하얀 모래가 아니라 빨로 뒤 덮여 있었고 강변에 늘어선 기암 석벽에 덧칠해진 누런색 황토색 띠는 홍수 때 만수위를 기록이라도 한 듯 줄기차게 하류에서 상류로 줄을 긋고 있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열고 녹기를 거듭한 결과 웅장했던 석벽은 하나둘 잘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들은 바로 폐허가 되면서 무너져 가는 옛 단양의 모습과 단양천과 남한강이 웅장한 주변 산들과 만나 빛어낸 신비로운 정경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울함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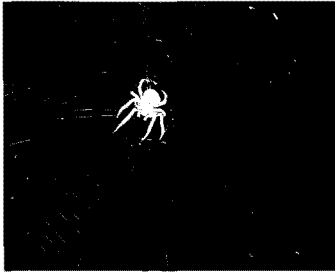
(그림 18) 얼음골에서 본 36번 국도



(그림 19) 봉산자락에서 바라본 사봉과 제비봉

단성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주유소 거머잡고 사봉 끝자락인 봉산 자락을 내려서자 봉산리 옛 마을 터로 내려왔다. 여기가 좀 전 머물렀던 우화교 건너 마을이 있었던 자리이다. 여기서 우화교를 건너지 않고 남쪽으로 소백산 기슭을 향해 길을 가면 하선암 그리고 중선암 사인암, 상선암으로 가게 된다. 다시 남한강변으로 길을 돌아 걸음을 몰아치자 멀리 사봉을 왼편으로 끼고 제비봉 자락에 자리한 구미리 마을이 보인다. 이곳이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단구협 출구였다. 조선 총독부 지형도를 보면 원래 깊은 해발 백여미터에 불과한 강변을 따라 구담봉이 보이는 장회나루까지 비포장 사등 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은 장회나루에서 실개천을 건너 구담봉과 옥순봉을 끼고 도는 작은 소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충주댐이 건설되자 남한강이 충주호로 변하고 담수되자 이 길은 모두 침수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봉과 제비봉 산자락을 해발 이백여 미터 높이로 가로지르는 포장도로가 장회리까지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봉산 자락을 돌아 빨로 변한 남한강 길을 한 시간 남짓 걸었을 까, 얼음골 골짜기 앞에서 왼편으로 사봉을 바라보고 제비봉 언덕으로 난 도로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강 건너 장엄하게 남한강줄기를 가로막고 펼쳐진 말목산 능선이 보인다. 세시경에 불과했지만 산그늘이 일찌감치 찾아 들었다. 이따금 이곳 풍광을 아랑곳하지 않은 듯 무심히 스치고 지나치는 승용차들을 제외하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월로 접어들었지만 산중에는 강추위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느지막하게 산봉우리에 올라선 겨울 해가 남쪽으로 기울대로 기울자 산그늘 속에서 숨어있던 어둠은 일찍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나마 온기를 잃은 햇살이나마 남동쪽 제비봉에 가리게 되면서 추위는 어둠살과 함께 골골을 채워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수록 추위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산들마저 추위를 견디기 어려울 양 이따금 긴소리를 내며 비탈에 내려선 나뭇가지를 심하게 흔들어대곤 했다. 그나마 계곡 건너 이따금 보이는 말목산 능선에 자리한 바위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구협을 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시달림 당하는 소리와 솔잎들이 휘쓸리는 소리가 쉼 없이 퍼져 산그늘 속을 방황하고 있다.

답사를 다녀와 글을 정리하던 보름을 하루 앞둔 저녁 무렵이었다. 컴퓨터 모니터에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가느다란 거미줄을 타고 내려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거미줄을 끊어 거미를 모니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곤 다시 밀린



〈그림 20〉 거미줄 그것은 도시의 원형이다.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시간 남짓 지났을까, 거미가 또 다시 내려와 대롱거리며 매달려 있지 않은가. 별스러운 생각이 든 나는 또 다시 줄을 끊고 거미를 모니터 위로 올려놓았다. 그리곤 밀린 글을 죽이느라 거미의 존재를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무심코 쳐다본 모니터 위에 거미가 또다시 대롱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놈은 모니터 위에서 책상으로, 책상에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방을 가로질러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처음 내려왔던 그곳을 찾아 또 다시 줄을 매고 모니터로 내려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내 관심은 모니터에서 다시 거미로 옮겨갔다. 이번만큼은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거미줄을 끊고 그 녀석을 다시 모니터 위에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놀란 거미는 한동안 뭔가를 찾아 분주하게 모니터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얼마 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한 곳에 멈춰 선 거미는 공지를 높이 치켜들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드디어 감을 잡았다는 듯 한 곳에 멈추어 서서 공지를 높이 들고 줄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공기에서 나온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가는 그 실이었다. 그실은 너울거리며 마술사처럼 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인내의 시간이 지나자 거미줄 끝은 마침내 천장에 닿았고 줄은 이내 팽팽해졌다. 그리고, 거미는 유유히 줄을 타고 천장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가 본 것은 줄을 타고 내려오던 거미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미였던 것이다. 순간 나는 이것이 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는 원초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정작 거미가 찾아 헤맸던 것은 모니터 속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의 흐름이었다. 모니터 열기에 데워져 가벼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거미는 거미줄을 천정으로 실어 올려 보낸 것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산길을 내는 우리자신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렇게 세로줄을 만들기 시작한 거미는 풀을 먹여가며 가로줄을 만들어 나뭇의 작은 도시를 천정모서리에 건설했던 것이다. 이것을 지켜보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산길은 등산로가 아니라 거미줄과 같이 우리자신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탱해주는 끈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1970년 항공도에서 길을 하나 하나 발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1/5,000지도에 그 길을 한올 한올 다시 입히기 시작했다.

수많은 실선들이 덮혀진 위에 거미가 가로줄과 세로줄을 구분하듯 간선도로를 입히기 시작했다. 이런 작업을 상당시간 반복해내자 1970년도 단양의 모습이 서서히 도면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과거로 들어갈 기본 도면이 작성된 셈이다.

남한강가에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림 21〉 1970년 단양을 항공사진



〈그림 22〉 1970년대 단양지형 복원도

아이들이 열레로 연실을 채고 낚을수록 그들의 연은 더 높이 떠올랐다. 그러다간 상당한 거리를 급강하하다가 다시 머리를 쳐들고 올라갔고 더러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용트름하는 것이 제법 솜씨 있는 연 날림이었다. 사실 열레는 연과 날리는 사람의 앞 가슴과 45도 각도로 지녀야 했고 연실과는 직선에 가깝도록 팽팽하게 되어 있어야 연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연이 곧바로 쉴 때 통줄을 주면 연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므로, 이때 연실을 재빨리 감아야 바람을 타게 된 연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빠르게 날게 된다. 그리고 아래, 위로 보내려면 통줄을 주어 연이 비스듬하게 될 때, 튀김을 주어야 연을 거꾸러트린 다음 열레를 낚아채면서 연줄을 감으면 연은 수직으로 곧두박질한다. 곧두박질하는 연을 다시 바로잡고 위로 올릴 때는 튀김을 주어 연실을 풀어주고 감으면 된다. 연을 날린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로 아래로 보내기를 잘해야 함은 물론 튀김을 잘 주어야 한다.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까마득한 옛날 일이어서 모습조차 찾아내기 힘든 단양의 모습이 연이라 한다면 지금 지도와 항공사진을 들고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